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5. 1. 22.(수) 11:00 < 1.23.(목) 조간 > 배포 2025. 1. 22.(수)

1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 점검

- 1월 수출은 일시적 둔화 전망, 미 신정부 출범 이후 업종별 수출여건 점검 -
- 박성택 1차관, '25년 1월 수출동향 점검회의 주재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는 박성택 1차관 주재로 1.22.(수) 오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,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를 점검하였다.

'24.12월에는 '22년 5월(616억불) 이후 31개월 만의 최대실적인 614억불을 기록하면서 '24년 역대 최대수출실적 달성을 견인하였다.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26.7억불(+4.3%)을 기록하면서 12월 기준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하였다.

특히, 반도체 수출은 역대 월 기준 최대실적인 145억불을 기록하였고, 컴퓨터(15억불, +118%), 무선통신기기(14억불, +16%)도 각각 세 자리,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을 보였다. 석유화학·철강·자동차부품·가전 등 주력품목도 양호한 수출실적을 기록하였다.

* '24.12월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(억불, %) : 석유화학 39(+2%), 철강 28(+3), 차부품 19(+6), 가전 6(+4)

박성택 1차관은 "올해 1월에는 IT제품의 글로벌 수요 둔화, 반도체 가격 하락과 함께 6일간의 설 연휴(1.25~30일)로 조업일수까지 크게 감소('24.1월 대비 △4.0일) 하면서 수출이 일시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. 다행히 아직까지는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이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, 미 신정부 출범 등으로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있고, 상반기 중 수출여건이 특히 엄중한 만큼, 준비중인 범정부 차원의 비상수출대책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담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"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무역투자실 수출입과	책임자	과 장	이창훈	(044-203-4040)
		담당자	사무관	여수항	(044-203-404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